

대웅화학, 원료 의약품 영업 호조

동원증권, 2004년 10-12월 매출 51% 증가 ... 2004년 매출 420억원

동원증권은 대웅제약의 원료의약품 제조 계열사인 대웅화학이 3/4분기(2004년 10-12월)에 사상 최대실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1월25일 밝혔다.

3/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0.9% 증가한 120억원, 영업이익은 10.4% 증가한 18억원, 순이익은 79.2% 증가한 19억원 등으로 추정했다.

또 2004회계연도 전체로는 매출액이 420억원으로 전년대비 24.2%, 순이익은 78억원으로 50.4%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.

동원증권 방원석 애널리스트는 “1년6개월에 걸쳐 개발한 의약품·화장품·건강보조식품용 원료의약품인 <CO-Q-10>을 전량 수출하고 있어 2005회계연도부터는 최대 매출품목으로 성장해 전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”으로 예상했다.

이에 따라 대웅화학에 대해 목표주가를 1만1000원으로 <매수>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.

<화학저널 2005/01/26>